

# '관선재' 가는 길... 예술의 향기 더 짙어진다

예술의 거리에 '갤러리 관선재' 카페 등 문열어  
서예가 이동진·남편 박상열씨 함께 운영  
11일~3월8일, 강은 등 36명 초청 개관 초대전  
원데이 클래스...프로·아마추어 아우러진 공간

나즈막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카페에 들어서니 벽에 걸린 학정 이돈홍 선생의 그림과 글씨가 눈에 띄었다. '봄날 그리운 사람을 그리다'라는 글씨와 함께 소박한 꽃을 피운 매화나무가 인상적이다. 학정이 고회전에서 선보였던 작품이다. 지난 1월 타계한 학정 선생의 모습이 떠오른 탓에 작품은 더 아련하게 느껴졌다.

최근 예술의 거리에 새로운 문화공간들이 문을 열면서 예술의 향기가 짙어지고 있다. 지난해말 박희정 조각가의 개인전이 열렸던 갤러리 관선재(광주시 동구 궁동 61-2)도 그런 곳 중 하나다.

관선재는 서예가 보정(寶亭) 이동진 작가와 갤러리 대표를 맡은 남편 박상열씨가 함께 운영하는 공간이다. 학정 선생의 오랜 제자인 이 작가는 전남대 학사, 원광대 대학원 미술학 석사, 일본 쓰쿠바국립대 예술학 석사 과정을 마쳤으며 세계사에전북비엔날레 기념공모전 대상 등을 수상했다.

관선재 1층은 갤러리 카페 '유유담', 2층은 50평 규모의 정식 갤러리, 3층과 4층은 세미나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다. 현재 옥상에 있는 이 작가의 작업실도 조만간 이곳으로 옮길 예정이다.

1층 카페는 박종석 작가 등 화가들의 작품 10여점이 걸려 있고, 소박한 도자기와 오래된 고구구 등이 자리하고 있어 멋진 분위기의 또 다른 갤러리처럼 보인다. 카페에 놓인 탁자 등은 건물을 증개축하는 과정에서 나온 서까래 등을 활용해 직접 제작해 운치를 더한다.

이 작가는 공동 토박이다. 중앙초등학교를 졸업했고 어머니가 오랫동안 예술의 거리에서 가게를 운영했던 터라 꼭 고향같은 곳이다. 6년전 우연한 기회로 땅을 매입하게 된 부부는 이곳을 어떻게 활용할까 고민이 많았다. 예술의 거리에서 갤러리를 운영해보고 싶은 마음이 늘 있었던 터라, 힘을 겨러고 만류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지만 과감히 결단을 내렸다.

문화예술교육사 과정을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분야 전공자들과 어울릴 수 있었고, 통합문화예술에 대한 공부도 하면서 서예 뿐 아니라 다른 장르와 어울리고 소통하면서 문화예술 환경을 만들어가고 싶다는 꿈도 이루고 싶었다.

관선재(觀善齋)라는 이름은 이 작가가 직접 지었다. '선함을 바라보는 집'이라는 뜻으로 '작가들 작품의 진정성을 바라보는 집'이라는 의미와 함께 대중들과 좀 더 가까이 서로 소통하고 나누는 전시공간으로 만들고 싶다는 마음도 담았다.

갤러리 관선재는 공식 개관전을 통해 미술 애호가들을 만난다. 오는 11일부터 3월8일까지 열리는 개관 초대전 '경계를 넘어서'전은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고, 그 경계를 넘어 다양한 협업도 꿈꾸는 마음으로 준비했다.

개관 전시는 이 작가 부부와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온 한부철 작가의 제안에서 출발했다. 전시에는 자신의 작업 세계를 일군 강남구강은·임남진·김상연·조정태·전현숙·박구환·최재영·한희원 작가 등 50대를 중심으로 중견 작가 36명을 초청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소장품을 걸어서 1층 카페도 전시 공간으로 활용한다.

앞으로 관선재는 다양한 공간을 활용해 전시 뿐 아니라 캘리그래피, 서예 등 원데이 클래스도 운영할 생각이다. 또 인문학 강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 시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생각이다. 전시장 역시 아마추어 작가들에게도 적극 개방할 예정이다.

"카페에 와서 차를 드시거나, 전시를 관람하러 오시는 분 중에도 의외로 예술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앞으로 저희 갤러리와 카페는 전업 작가들은 물론이고 취미로 작품 활동을 하거나, 예술에 관심이 많은 이들이 함께 문화로 소통하는 공간으로 만들어갈 생각입니다."(이동진 작가)

박상열 대표는 "30년 넘게 한 길을 걸으며 많은 고민과 험난한 난관을 극복하고 활동하는 작가분들께 무한한 존경심과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다"며 "관선재 역시 작가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다"고 말했다. 전시 개막 11일 오후 6시.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아이들도 어른들도 '푹'

최순임 작가 드로잉집 'Bon voyage' 펴내

최순임 작가의 작품은 아이들에게도 인기가 많지만 '어른을 위한 동화'이기도 하다. 그녀 작품 속에 자주 등장하는 꿈꾸는 소녀 '모리'와 그 곁을 지키는 고양이 '양양'은 보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건넨다. 그녀는 작가로서 고민이 많았을 때 '스스로에게 묻는 확인' 같은 의미로, '고양이에게 길을 묻다'라는 제목의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평면 작품 뿐 아니라, 전공을 살린 조각, 오르골 작업 등 꾸준히 새로움을 시도해온 최순임 작가가 드로잉집 'Bon voyage'를 펴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꾸준히 작업해온 결과물을 모은 책이다.

책에서는 여행, 소녀, 고양이 등 그녀의 작업소재들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그 흔적을 만날 수 있다.

그의 드로잉은 이후 대형 아크릴 평면 작품으로, 다양한 조각으로, 오르골 등 다채로운 모습으로 변신하기도 하지만 그 자체만으로 다양한 스토리를 들려준다. 최 작가는 드로잉 작업이 작가에게 '속살같은 이야기'를 보여주는 작업이라고 말한다. 본격적인 작품으로 향해 가는 하나의 '과정'일수도 있지만 '그 과정'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근사한 작품이라는 설명이다.

책에는 암 수술 후 무등산 요양원에서 힘겹고 긴 터널을 지나 봄을 기다리며 작업한 드로잉 작품을 비롯해 '고양이에게 슬픔을 달고', '여행자', '유트 피아를 꿈꾸는', '인생목마' 등 인생과 작업 세계에 대해 쓴 짧은 글도 함께 실었다. 또 작품집 발매에는 지난해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에서 열렸던 'Bon voyage-머무는 요양객' 전시 풍경과 광주비엔날레 월레회 현장 사진도 담았다.

한편 최 작가는 오는 2월말부터 광주시립미술관이 주최하는 가족 체험전 '놀이미술이 될 때' 전 참여가 결정돼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작품을 준비중이다. 또 3월에는 국내외 40여명의 작가가 박영덕 화랑 등 15개 갤러리에서 동시에 개최하는 드로잉 전시 'Buzz after Buzz'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전남대와 동대학원에서 조소를 전공한 최 작가는 광주문화예술상 오지호상 특별상, 광주시미술대전 특선 등을 수상했으며 광주시립미술관 국제 레지던시 요코하마 파견작가로 활동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1 예술의 거리에 자리한 갤러리 관선재.  
2 갤러리 내부 모습.  
3 갤러리 1층의 카페 '유유담'



## 광주여성가족재단,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성평등 교육' 진행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미경)이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과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을 운영한다. 먼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사업으로 의무교육대상인 아닌 곳을 전문강사가 직접 찾아가 맞춤형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학교, 공공기관 등 의무교육대상을 제외한 일반시민 또는 민간기업, 사회복지 시설, 문화·예술·스포츠계 희망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의 주요 내용은 ▲성폭력과 가정폭력의 특성 및 대처방법 ▲주요 사례와 지원체계 등이다. 1회 10명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찾아가는 성평등교육'은 광주지역 초·중·고등학교, 민간기

업, 단체, 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다. 성평등교육의 주제는 ▲성차별 인식개선부분 ▲성인지 감수성향상부분 ▲디지털 성폭력 ▲데이트 폭력 등 이며 집합교육이 아닌 개별 교육 또는 소수그룹으로 진행된다. 신청은 2월중순부터 10월까지 가능하며 교육은 3월부터 신청한 학교·기관 등과 협의해 결정해 진행한다. 신청은 광주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양식을 다운받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전은혜 기자 ej6621@kwangju.co.kr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2015~2019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무선 액세서리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기술부문] 수상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보세요”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 大山 프리모 남녀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062 673 5858 (모발모발)**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